

여자 중·고등학생의 교복착용실태 및 선호하는 교복디자인 연구 —서울시내 여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박 현 숙·성 화 경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학과

The Study of Favorite School Uniform Design and the Survey of Actual State in Uniform of Middle and High School Girls in Seoul

Park, Hyun-Suk · Seong, Hwa-Kyung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ollage of Education, Korea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ntends to provide sources which enable students to satisfy uniform design as I surveyed preferable uniform design and degree of satisfaction of uniform design to students. The subjects were gathered into 91 middle-high schools and surveys were done among 400 school girls.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survey of uniform which students wear. For jacket, tailored collar which is single breasted is most common and for blouse, puff sleeve, soutien collar, shirt collar is common. For skirt, lastly, they usually wear side pleats skirt.

2) Thoughts of uniform students preferred uniform to casual. The merit of wearing uniform can represent themselves as the 'students', on the other hand, the demerit is shown that uniform is inconvenient enough to move.

3) Preference of uniform design. Students prefer tailored jacket, shirt blouse, flare skirt.

Basing on these results above, I'd like to suggest something about uniform. The demerit of wearing uniform lies in inconvenience. It would weaken the degree of satisfaction of uniform and have a negative influence on students in physical and mental side. So we have to find out the concrete problems, at the same time, develop measurable study which fits for body. Adolescence is period of developing and establishing self. So they really need rather creative educational atmosphere than stereo typed-control. Reflecting this opinion, Clothing habits can play an important role and in future it is desirable to have students wear not uniform but casual.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의복은 인간이 형성한 문화유산의 하나인 동시에 개개인이 독특한 방법으로 환경에 적응하여 가는 자기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김영인, 1981). 의복이 인간의 행동이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연령 층이나 중요하지만, 아직 자아가 확립되지 못하였고 이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자신이 속한 집단의 승인과 소속을 갈망하는 청소년기에 있어서는 신체적 외모와 의복이 어느 시기보다 중요하다(이인자, 1992).

우리나라의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고등학생들은 통학복으로 교복을 착용하고 있는 학교가 많은데,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생활하여 교복을 착용하고 있는 시간이 긴 만큼 그 중요성도 크다하겠다.

중·고등학교의 교복은 1886년 이화학당에서 처음 착용하기 시작한 이래, 해방 이후 1982년 까지 획일적인 교복을 착용하여 오다가, 1983년 문교부(지금의 교육부)의 「교복 자율화정책」 실시로 통학복으로 자유복을 착용하게 하였으나, 학생지도의 어려움, 비행 청소년의 증가, 계층간의 위화감, 경제적인 이유등을 들어 자유복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높자, 1986년 2학기부터 교복착용을 허용하는 정책이 발표되었다(1985, 10. 17. 동아일보). 이후로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는 점차 늘어나 1993년 현재 서울시내 중·고교중 80% 이상이 교복을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서울시 교육청, 1993), 이전의 획일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종전보다는 색채나 디자인면에서 다양해졌으나 사회적으로 의복이 개성적인 면을 추구하고, 다양한 소재와 디자인이 개발되면서 그 변화의 주기가 점차 짧아지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학생들의 교복 만족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현재 각 학교의 교복디자인의 결정은 교사나 교사와 학부모들의 공동결정으로 이루어져 착용자인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교복디자인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 하겠다.

그러나 선행연구를 보면, 여자 중·고생을 대상으로 교복과 자유복에 대한 태도를 비교·분석한 연구나 여고생들의 교복디자인 선호도에 대한 연구

는 이루어 지고 있으나, 실제로 여자중·고생이 착용하고 있는 교복의 디자인, 색상, 소재에 대한 실태조사와 여중·고생이 선호하는 교복디자인 간의 비교·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서울시내 소재 여자 중·고등학생들의 현재 착용하고 있는 교복의 실태를 조사하고, 교복에 대한 태도와 선호도를 분석하여, 실태조사의 결과와 선호하는 교복디자인간의 차이를 비교·검토하여 만족스런 의생활을 통하여 좀더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교복디자인 개선의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2. 연구내용

1) 서울시내에 소재하는 여자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현재 착용하고 있는 교복의 디자인, 색상, 소재, 가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분류한다.

2) 여자 중·고생들의 교복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여 학교급별(여중생/여고생), 학교소재지별(강남/강북), 통학복선후 유형별로 비교·분석한다.

3) 여자 중·고생들이 선호하는 교복디자인을 조사하여 학교급별(여중생/여고생), 학교소재지별(강남/강북), 통학복선후유형별로 비교·분석한다.

4) 현재 착용하고 있는 교복디자인과 여자 중·고생이 선호하는 교복디자인 간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여, 앞으로의 새로운 교복디자인의 자료를 제시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과 의복행동

청소년이란 의존된 아동기로부터 자립적인 성인기로 가는 전환기로,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아동의 행동과 성인으로서의 행동을 구별해서 새로운 적응을 해야하는 경계상태를 의미한다(송병두 역, 1981).

청소년기의 규정은 학자에 따라 다르나, 김정희(1991)는 14세이상에서 20세이하로 규정했고 민영순(1991)은 청년전기를 중학교 시기, 청년중기를 고등학교 시기, 청년후기를 대학교 시기로 나누어 청소년기는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연령층이 해당된다.

이 시기는 신체 각 부분의 급격한 발달이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개인차기 있고 또한 신체 각 부의 발달이 한결같지 않으며, 제2차 성징이 나타나는 등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변화가 일어나 이 요인이 정신적인 측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며 홍분과 동요가 쉽게 일어나게 된다. 또한 청소년은 또래집단의 승인이나 칭찬을 중요시 여기며, 그들 집단에 소속되기를 갈망하여 사회적으로 안정감을 얻으려 하는데,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욕구불만의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장병립, 1985).

청소년기는 아동기의 자아중심적인 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며, 이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이성에게 좀더 매력적으로 보이기를 원하고, 자신의 외모나 행동에 관해 관심이 많아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정도로 자신의 외모나 행동을 인지한다고 느낀다. 때문에 이 시기는 눈에 보이거나 직접 느낄 수 있는 의복, 신체적 외모, 혹은 매너로써 집단의 인정을 받으려 하며, 이러한 요인이 의복에 대한 관심을 생의 어느 시기보다 증가시켜 자신의 생활의 지배적인 요소로서 작용하게 된다(이인자, 1992).

Ryan(1966)은 10대의 청소년들은 친구들 사이에 수용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여 다른 친구들과 비슷한 의복을 착용함으로써 비웃음을 받지 않으려 한다고 했다. Kelly와 그의 동료들(1974)도 의복을 잘 입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긴장감과 상실감을 가지며, 자신이 의복을 잘 입었다고 생각되면 어떤 사회적 상황에서든지 활동적이 되고 집단의 일원임을 자각하나 만일 의복을 잘못 입었다고 생각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생각될 때는 자신은 그 집단의 일원이 아닌 방관자로서의 느낌을 갖게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이와같이 청소년기는 다른 어느 시기보다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시기이며 의복은 자신감의 획득, 동년배 집단과의 동조, 사회적 승인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착용하고 있는 의복의 상태가 그들의 심리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에 획득한 신체의 긍정적인 감정은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관련되므로 인생의 어느 시기보다 의복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김순심 역, 1991).

2. 교복의 특성

교복이란 학교에서 일정하게 제정해 학생들에게 입히는 학교제복 즉, school uniform을 말한다(김춘식, 1981). 일반적으로 제복에는 다섯가지 주요 기능이 있는데 첫째, 제복은 집단구성원의 상징이 되어 집단구성원들이 서로 동일시하도록 허용하거나 강제로 동일시하게끔하고 둘째, 제복은 어떤 사람의 현재의 역할에 대해서만 전달하고 다른 모든 역할에 대한 정보를 감추며 세째, 제복은 한 개인을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그 집단을 대표하고 집단에 대한 각자의 행동에 책임감을 부과함으로써 어떤 상황에서의 사람들의 역할을 “합법화”한다. 네째, 제복은 한 사람이 하나의 개인이 아니라 집단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상징하여 개성을 억누르며 집단이 개인의 행동을 통제하도록 돋는다. 즉, 제복은 주로 개인의 요구라기 보다는 제도의 요구를 충족시킨다. 다섯째, 제복은 집단경계를 한정하고 집단목표를 중진시키고 역할 갈등을 줄임으로써 조직의 문제를 다룬다(김순심 역, 1991).

이와같이 제복은 사회에 있어서의 그 단체의 표시이며 단체의 구성원에게는 공통분모를 갖게하여 집단구성원으로서 규율이 지켜져 질서가 잡히게 되는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특히 교복은 일반 제복이 가진 목적, 기능외에도 교육적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즉, 교복의 착용으로 의복에 대한 필요 이상의 관심을 막고 착용자 자신의 신분을 명확히 인식하여 소속감과 공동의식을 고취함으로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박찬해, 1981). 그러나 Langner(1965)에 의하면 소년들은 어떤 그룹에 속해 있다는 의미로 제복을 입는데 여기서 용기를 얻어 오히려 비행이 일어나기 쉽다고 했다.

이와같이 교복착용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공유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대부분은 통학복으로 교복을 착용하고 있으므로 교복이 지니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을 보완하는 것은 중·고등학생의 바람직한 학교생활과 의생활을 위해서 시급한 문제라 하겠다.

3. 교복에 대한 선행연구

최홍자(1974)는 서울시내 여고생 60명을 대상으로 한 “교복연구”에서 교복의 장단점을 조사하였는

데, 교복의 장점으로는 학생다움과 웃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생활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통일·단결되 보인다로 들고 있으며, 교복의 단점으로 활동성과 관리면에서 불편하고 멋·개성이 없다는 것을 들고 있다.

김영인(1981)은 서울시내 여자 중·고생 48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개인은 특수한 집단의 제복을 입음으로써 집단규칙의 범위내에서 행동하게 된다고 하여 교복착용에 대한 효과를 설명하였고, 경제수준이 높고 가정분위기가 민족적이고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율화된 복장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수희(1988)의 서울시내 교사, 부모, 여고생 11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교복과 자유복에 대한 태도 연구”에서 현 교복의 만족정도는 부모는 하층이, 학생은 상층이 만족정도가 컸으며, 교사, 부모보다 학생의 불만족이 컸다. 교복착용시 불편점은 활동이 불편하다였고, 교복의 만족이유는 단정하고 학생다와 보이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했다.

김윤희(1991)의 서울시내 여중생 678명을 대상으로 교복의 선호도 및 태도를 비교분석한 조사연구에 의하면 교복선호도는 자유복 선호도보다 높으며 강남보다는 강북이, 상층보다는 중·하층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김순화(1992)의 청주와 대전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교복착용이 학생의 자아개념과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는 현재 자유복을 착용한 학생보다 교복을 착용한 학생이,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학생이, 자신의 복장에 만족하고 있는 학생이 교복을 더 선호하고 있다고 한다.

이인자(1992)의 교복착용여부와 청소년비행과의 관계를 조사연구한 것에 의하면, 현재 교복을 입는 학교와 자유복을 입는 학교간에 비행행동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비행행동은 자유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으나 등하교시 외에는 거의가 자유복을 입고 행동하므로 교복착용이 큰 변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오히려 부모에 대한 애착, 학교에 대한 애착이 강할수록 비행은 적게 일어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조사대상은 서울시내에 있는 여자 중학교와 여자 인문계 고등학교 중 교복을 착용하고 있는 학교 각각 4개교를 선정하였는데, 지역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강남에서 4개교(여중 2, 여고 2), 강북에서 4개교(여중 2, 여고 2)로 하였으며 조사대상은 모두 2학년으로 하였고 인원수는 각각 50명씩 400명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은 다음과 같다.

① 연령

본 조사대상자의 연령분포는 13세가 56명으로 14.0%, 14세가 144명으로 36.0%이고 16세가 92명으로 23.0%, 17세가 108명으로 27.0%이다.

② 형제관계

형제관계중 언니의 유무에 관한 사항에서, 언니가 있는 학생은 109명으로 27.3%이고 언니가 없는 학생은 291명으로 72.7%이다.

③ 부모의 학력

아버지의 학력은 국졸이하에서 대학원 이상까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었는데 고졸이 171명(42.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대졸(전문대 포함)이 155명으로 38.7%, 대학원 이상 11.0%, 중졸 5.7%, 국졸 이하 1.8%이다.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이 210명으로 52.5%이고 대졸(전문대 포함)이 109명으로 27.3%이며 중졸 16.3%, 국졸 이하와 대학원 이상은 모두 2.0%이다.

2. 조사도구의 작성

교복에 대한 태도와 교복디자인 선호도 연구에서는 조사도구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질문지는 선행연구자(이수희, 1988. 김윤희, 1991. 유경숙, 1991)의 질문항목을 연구내용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일부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질문지 내용은 25문항중, 교복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 9문항, 교복디자인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 11문항, 조사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복의 태도에 관한 문항중 교복을 착용하였을 때 이롭다고 생각하는 점과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점, 자유복을 착용하였을 때 이점과 문제점에 대한 문항은 각각 그렇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적어하였고, 그외의 문항에는 한가지 답만 선택하도록 하였다.

3. 자료의 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하여 이용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실태조사는 각 항목별로 빈도(N)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교복에 대한 태도문항중 외출시 교복착용실태, 현 교복의 만족도, 현교복의 가격의 만족도에 대한 문항은 t-test와 분산분석을 했으며, 그외의 문항과 교복디자인 선호도에 관한 사항은 빈도와 백분율, chi-square test를 적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은 빈도(N)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이상의 자료분석을 위한 통계처리를 통계 package program SAS를 이용해 전산처리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현재착용하고 있는 교복의 실태조사

서울시내 소재 중학교 40개교, 고등학교 51개교의 교복디자인, 가격 및 소재의 실태조사를 서울시내를 10개지역으로 구분해서 실시하였다. 실시시기는 1993. 8. 6~1993. 10. 12이다.

1) 재킷

① 재킷의 칼라

실태조사로 나타난 교복 재킷의 칼라는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중·고등학교 모두 테일러칼라가 가장 많았으며, 칼라가 없는 경우 V넥크라인이 많았다. 교복은 정장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인지 재킷의 기본칼라인 테일러칼라가 많았다.

② 재킷의 여밈

여밈은 표 2에서와 같이 단정해 보이는 싱글여

〈표 1〉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교복 재킷의 칼라

N : 학교수

	중		고		소 계	
	N	%	N	%	N	%
테일러칼라	27	67.5	34	66.7	61	67.0
솔칼라	1	2.5	1	1.9	2	2.1
세일러칼라	0	0	2	3.9	2	2.1
V넥크라인	10	25.0	12	23.5	22	24.1
라운드넥크라인	2	5.0	2	3.9	4	4.3
합 계	40	100.0	51	100.0	91	100.0

* 본 연구의 질문지에는 각 항목별로 그림이 있었으나 지면상의 이유로 표의 그림은 뒤에 부록으로 실었습니다(표 1).

〈표 2〉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교복 재킷의 여밈

N : 학교수

	중		고		소 계	
	N	%	N	%	N	%
싱글여밈	21	52.5	34	66.7	55	60.4
더블여밈	19	43.8	16	31.3	37	40.7
벌어진여밈	0	0	1	1.9	1	1.1
합 계	40	100.0	51	100.0	91	100.0

〈표 3〉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교복 블라우스의 소매

N : 학교수

		중		고		소 계	
		N	%	N	%	N	%
셔츠소매	춘추복	16	40.0	21	41.1	37	40.7
	하·복	0	0	0	0	0	0
퍼프소매	춘추복	21	52.5	29	56.9	50	54.9
	하·복	33	82.5	39	76.4	72	79.1
커프스없는소매	춘추복	3	7.5	1	1.9	4	4.4
	하·복	7	17.5	12	23.5	19	20.9
합 계		40	100.0	51	100.0	91	100.0

〈표 4〉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교복 블라우스의 칼라

N : 학교수

		중		고		소 계	
		N	%	N	%	N	%
셔츠칼라	춘추복	29	72.5	37	72.5	66	72.5
	하·복	2	5.0	4	7.8	6	6.6
스텐칼라	춘추복	8	20.0	6	10.1	14	15.4
	하·복	13	32.5	17	33.3	30	32.9
파티팬칼라	춘추복	2	5.0	4	7.8	6	6.6
	하·복	5	12.5	6	11.8	11	12.1
세일리칼라	춘추복	1	2.5	0	0	1	1.1
	하·복	14	35.0	7	13.7	21	23.0
스탠드칼라	춘추복	0	0	2	3.9	2	2.2
	하·복	0	0	1	1.9	1	1.1
리본칼라	춘추복	0	0	2	3.9	2	2.2
	하·복	0	0	0	0	0	0
스포츠칼라	춘추복	0	0	0	0	0	0
	하·복	6	15.0	16	31.4	22	24.2
합 계		40	100.0	51	100.0	51	100.0

밈이 많았으며, 아래가 벌어진 여밈은 거의 착용하지 않았고, 귀엽고 발랄해 보이는 더블여밈은 중학생 교복에서 많았다.

2) 블라우스

① 블라우스의 소매

블라우스의 소매는 춘추복·하복 모두 퍼프소매가 가장 많았는데(〈표 3〉 참고) 이는 여성 여성스러움과 귀여운 느낌을 주는 디자인으로 많이 선택되었다고 생각한다.

② 블라우스의 칼라

브라우스칼라는 춘추복은 셔츠칼라, 하복은 스텐칼라로 계절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4〉 참고). 춘추용에는 테일러칼라와 스포츠칼라가 없고 하복에는 리본칼라가 없어 기온에 적합한 디자인을 택한 것으로 보여진다.

2) 조끼

조끼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착용하고 있으며, 니트보다는 직물이 많았다(〈표 5〉 참고). 여밈은 더블여밈에 아래가 약간 벌어진 형이 많았는데, 이는 재킷의 싱글여밈이 많은 것을 감안할 때 재킷과의

〈표 5〉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교복 조끼의 모양

N : 학교수

	중		고		소 계	
	N	%	N	%	N	%
싱글여밈	7	17.5	15	29.4	22	13.1
더블여밈	31	72.5	28	55.0	57	67.8
벌어진형	2	5.0	3	5.9	5	9.8
니트	2	5.0	2	3.9	4	4.3
착용하지 않는다	0	0	3	5.9	3	3.2
합 계	40	100.0	51	100.0	91	100.0

〈표 6〉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교복 스커트의 형

N : 학교수

	중		고		소 계		
	N	%	N	%	N	%	
부분주름 스커트	춘추복	34	85.0	38	74.5	72	79.2
	하 복	27	67.5	37	72.5	64	70.3
	동 복	30	75.0	44	86.3	74	81.2
플레이어 스커트	춘추복	0	0	4	7.8	4	4.3
	하 복	4	10.0	8	15.7	12	13.1
	동 복	0	0	3	5.9	3	3.3
타이트 스커트	춘추복	5	12.5	1	1.9	6	6.6
	하 복	5	12.5	1	1.9	6	6.6
	동 복	9	22.5	1	1.9	10	10.9
플리츠 스커트	춘추복	1	2.5	5	9.8	6	6.6
	하 복	1	2.5	3	5.9	4	4.3
	동 복	1	2.5	2	3.9	3	3.3
점퍼 스커트	춘추복	0	0	2	3.9	2	2.2
	하 복	3	7.5	2	3.9	5	5.5
	동 복	0	0	0	0	0	0
합 계	40	100.0	51	100.0	91	100.0	

조화를 위해 변화를 주었다고 볼 수 있다.

4) 스커트

스커트는 계절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부분주름스커트를 가장 많이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고). 이 스커트는 단정해 보이면서 활동이 편한 장점이 있으나 근래 패션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디자인으로 의복의 유행이나 외모에 민감한 청소년 시기 여학생들이 어느정도 만족하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5) 교복의 색상

교복의 색상은 교실의 분위기와 맞아야 하고 너무 침체되거나 현란한 색상은 피하는 것이 좋다. 재킷은 곤색계통, 블라우스는 백색을 가장 많이 착용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교복의 색상이 너무 제한된 것 같다(〈표 7〉 참고).

6) 교복의 무늬

재킷과 블라우스는 무늬가 없는 것을 많이 착용하고 있으며, 조끼와 스커트는 무늬없는 것과 무늬 있는 것의 비율이 비슷하다. 무늬가 있는 경우 재킷은 체크무늬가 대부분이며 블라우스는 물방울무

(표 7)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교복의 색상

N : 학교수

	재 컫		고		소 계	
	N	%	N	%	N	%
곤색 계통	25	62.5	34	66.7	59	64.8
초록색 계통	5	12.5	6	11.8	11	12.1
자주색 계통	10	25.0	5	9.8	15	16.4
회색	1	2.5	6	11.8	7	7.7
검정색	0	0	0	0	0	0
합 계	40	100.0	51	100.0	91	100.0
블 라 우 스						
자주색 계통	2	5.0	1	2.9	3	3.3
곤색 계통	1	2.5	3	5.8	4	4.3
백색	37	92.5	47	92.2	84	92.4
합 계	40	100.0	51	100.0	91	100.0

(표 8)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교복의 무늬

N : 학교수

	재 컫		고		소 계	
	N	%	N	%	N	%
체크무늬	2	5.0	0	0	2	2.1
무늬없다	38	95.0	51	100.0	89	97.9
합 계	40	100.0	51	100.0	91	100.0
블 라 우 스						
체크 및 줄무늬	7	15.0	9	17.6	16	17.5
물방울무늬	1	2.5	1	1.9	2	2.2
무늬없다	32	82.5	41	81.5	73	80.3
합 계	40	100.0	51	100.0	91	100.0
스 커 트						
체크무늬	20	50.0	29	56.9	49	53.8
무늬없다	20	50.0	29	43.1	42	46.2
합 계	40	100.0	51	100.0	91	100.0
조끼						
체크무늬	21	52.5	29	56.9	50	54.9
무늬없다	19	47.5	22	43.1	41	45.0
합 계	40	100.0	51	100.0	91	100.0

무늬를 사용한 학교가 있었다. 재킷이 체크일 경우 시작적으로 혼란스럽고, 안정감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무늬가 없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조끼나

스커트의 무늬로 재킷의 단조로움을 보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표 8〉 참고).

7) 소재와 가격

소재는 경제성과 실용성을 고려하여 혼방이 많은 것이 특징이며, 가격은 소재에서 wool의 함량과 디자인의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중학교는 한벌에 76,000~96,000원이며, 고등학교는 한벌에 79,000~98,000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 교복에 대한 태도

1) 통학복으로 선호하는 복장의 유형

통학복으로 선호하는 복장의 유형을 학교급별, 학교 소재지별로 비교한 결과는 <표 9>과 같다. 통학복으로 어떤 복장을 선호하느냐는 질문에 통학복으로 자유복(14.8%)보다는 교복(35.5%)을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선행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교복선호의 경향은 1973년 93%, 1978년 70%, 1981년 51%, 1991년 45.8%이고, 이번 연구에서는 35.5%로 점차 감소되고 있다. 이는 여학생들의 의복행동이 동조성보다 개성표현을 중요시 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유행의 흐름이 빨라지고 의복의 스타일이 다양해짐에 따라 교복착용으로는 의복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풀이된다.

전체적으로 교복과 자유복을 병용해서 입는 유형(49.8%)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생들이 교복착용의 장점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나 선행연구(김영인, 1981)에서 지적된 단점에 대한 부분 즉, 미적감각 및 개성의 결여, 비활동성은 의복착용에서 절대적 기능이므로 자유복을 착용

함으로써 보완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통학복으로 선호하는 복장의 유형은 학교급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들이 교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복착용 기간이 길었던 고등학생들이 교복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교복착용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교복에 대하여 더욱 긍정적이라는 선행연구(김정희, 199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인문계 고등학생들이기 때문에 웃에 신경을 쓰기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하는 경향도 반영된 것 같다.

지역에 따라서도 통학복으로 선호하는 복장이 차이를 보이는데, 강남 지역의 학생들이 강북 지역 학생들보다 교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의 특성상 상대적 빈곤감을 우려했기 때문일 것으로 풀이되는데, 선행연구(김윤희, 1991)의 교복 선호에 대한 연구에서 강남 36.4%, 강북 58.2%로 나타난 것과는 차이가 있다.

2) 교복을 착용했을 때의 이로운 점과 그렇지 못한 점

교복을 착용했을 때 이롭다고 생각되는 사항과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에 대해서 각각 그렇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기입하게 하였다. 그 순위와 항목수를 곱하여 각 항목의 점수를 산출한 후 평균을 내었는데, 각 항목의 점수는 클수록 순위가 높다.

<표 9> 통학복으로 선호하는 복장의 유형

N: 학교수, (): %

	집 단 별		합 계	지 역 별		합 계
	중	고		강 남	강 북	
1. 교복	56 (14.0)	86 (21.5)	142 (35.5)	84 (21.0)	58 (14.5)	142 (35.5)
2. 자유복	42 (10.5)	17 (4.3)	59 (14.8)	36 (9.0)	23 (5.8)	59 (14.8)
3. 병용	102 (25.5)	97 (24.3)	199 (49.8)	80 (20.0)	119 (29.8)	199 (49.8)
합 계	200 (50.0)	200 (50.0)	400 (100.0)	200 (50.0)	200 (50.0)	400 (100.0)
유의도 X ² 검증	$X^2=17.1 \ df=2$ $p<.001$			$X^2=15.3 \ df=2$ $p<.001$		

학교급별, 학교 소재지별, 통학복선호 유형별로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0, 11) 참고). 전체적으로 교복착용의 이로운 점을 ‘학생신분을 표현한다’ ‘단정하고 학생답다’ ‘학생신분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억제해 준다’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제복의 기능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수희(1988)의 연구결과인 ‘옷에 신경을 덜 쓰게된다’ ‘학생신분이 확실해진다’ ‘단정해 보인다’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준다.

통학복선호 유형별로 보면, 교복선호 학생들은 ‘학생의 신분을 표현’ ‘단정하고 학생답다’ ‘옷에 무관심하여 공부에 전념할 수 있다’로 생각하고 있으나, 자유복선호 학생들은 ‘학생신분을 표현’ ‘단정하고 학생답다’ ‘학생신분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억제한다’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유복을 착용함으로 해서 공부에 지장을 준다고는 보지 않는 것 같다.

교복을 착용함으로써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활동이 불편’ ‘매일 입어야 하므로 지루하다’ ‘심리적으로 부자유스럽다’로 나타났는데, 선행연구(이수희, 1988)의 연구결과인 ‘활동이 불편’ ‘온도변화에 대처하기 힘들다’ ‘세탁이 불편’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여학생들에게 있어서 의복의 실용적인 기능도 중요하지만 의복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려는 욕구가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생활의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의생활에 변화를 줌으로써 새로운 활력을 얻도록 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면이라 할 수 있다. 이 요인이 교복과 자유복을 병용해서 입는 것을 선호하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되어 권장할만 하다고 본다.

통학복선호 유형별로 보면, 교복착용을 선호하는 학생들은 ‘활동이 불편’ ‘기온변화에 맞추어 옷을 입을 수 없다’를 좋지 못한 점으로 지적해 교복의 실용적인 관점에 중점을 두었으나, 자유복을 선호하

(표 10) 교복을 착용함으로써 이로운 점

	전체	학교 급별		지역별		통학복선호유형별		
		중	고	강남	강북	교복	자유복	병용
1. 학생의 신분을 표현	6.13	3.17	2.95	2.87	3.18	5.91	6.67	6.12
2. 단정하고 학생답다	5.43	2.63	2.80	2.72	2.64	5.88	5.11	5.08
3. 학생신분에서 벗어나는 행동억제	4.43	2.33	2.09	2.15	2.37	4.16	5.05	4.43
4.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음	4.38	2.22	2.15	2.18	2.19	4.72	4.15	4.18
5. 옷에 무관심하여 공부에 전념	4.35	2.08	2.27	2.31	2.03	4.97	3.44	4.17
6. 유대감의 형성	4.17	2.28	2.27	2.14	1.77	3.92	4.15	4.35
7. 빈부차이 드러나지 않음	4.16	2.11	2.05	2.17	1.76	3.39	4.52	4.22
8. 학교의 우월성 표시	2.93	1.54	1.39	1.34	1.58	2.47	2.98	3.23

(표 11) 교복을 착용함으로써 좋지 못한 점

	전체	학교 급별		지역별		통학복선호유형별		
		중	고	강남	강북	교복	자유복	병용
1. 활동이 불편	5.32	2.68	2.64	2.64	2.67	5.21	5.86	5.24
2. 매일 입어야하므로 지루함	4.23	2.04	2.04	2.00	2.08	3.78	4.10	4.29
3. 심리적으로 부자유	3.83	1.84	1.83	1.83	1.84	3.68	4.15	3.70
4. 디자인이 유행에 뒤지고 청소년감각과 맞지않음	3.65	2.10	1.54	1.86	1.78	3.24	4.30	3.74
5. 체형의 결점을 보완못함	3.56	1.59	1.78	1.75	1.62	3.71	3.23	3.18
6. 세탁 및 관리가 불편	3.37	1.69	1.67	1.64	1.72	3.52	3.16	3.32
7. 기온변화에 맞춰 입지못함	3.15	2.03	2.47	2.25	2.25	4.82	3.76	4.28

는 학생들은 '활동이 불편' '디자인이 유행에 뒤지고 청소년의 감각에 맞지 않는다'로 나타나 미적인 관점에서 교복을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자유복을 착용했을 때 좋은 점과 문제점

자유복을 착용했을 때의 좋은 점은 '편하고 활동적이다' '미적감각 및 개성을 살릴 수 있다' '의생활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다'로 나타나(〈표 12〉 참고), 교복의 획일적인 것보다는 자신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스스로 의생활을 계획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학복선호 유형별로 보면, 교복선호 학생들은 교복을 착용함으로 심리적인 부담은 느끼지 않는데 비해, 자유복선호 학생들은 자유복을 착용했을 때 심리적으로 자유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여진다.

자유복을 착용했을 때의 문제점으로는 '의생활비가 증가한다' '옷에 신경을 써 공부에 지장을 준다' '학생답지 못한 옷차림을 하게 된다'로 나타났다(〈표 13〉 참고).

4) 학교갈 때 이외의 외출시 교복착용 실태

중·고등학생 모두 학교갈 때 이외의 외출시에는 교복을 거의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표 14〉 참고), 선행연구(최홍자, 1974)의 '학교 등하교

시에만 입는다(6%)' '외출시 교복을 입을 때도 있고 입지 않을 때도 있다(67%)' '외출시 항상 교복을 입는다(27%)'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하면 시대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는 모든 학교가 획일적인 교복을 착용했을 때보다 외출시의 교복착용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교복자율화 시기를 거치면서 학생들은 반드시 교복을 착용해야 한다는 관념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의류업체가 많이 생겨남으로 청소년들의 구매를 자극하는 것도 한 요인이라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와 같이 학교갈 때 이외의 외출시에는 교복착용을 거의 않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복착용으로 교외지도를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은 고려해 보아야겠다.

5) 현재 착용하고 있는 교복의 만족도

교복착용 기간이 길었던 고등학생들의 만족도가 중학생들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다(〈표 15〉 참고).

현 교복의 만족도를 보면 중·고등학생들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데, 통학복선호 유형별 결과는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는데, 자유복을 선호하는 학생들은 현저하게 불만족스러워하는 것

〈표 12〉 자유복을 착용하므로써 이로운 점

	전체	학교 급별		지역별		통학복선호유형별		
		중	고	강남	강북	교복	자유복	병용
1. 편하고 활동적	4.09	2.06	2.03	2.04	2.05	4.13	4.15	3.70
2. 미적감각 및 개성을 살릴 수 있다	3.10	1.52	1.58	1.52	1.58	3.02	3.25	3.11
3. 의생활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다	2.64	1.37	1.27	1.27	1.36	2.59	2.62	2.67
4. 의생활에 변화를 줄 수 있다	2.59	1.26	1.33	1.32	1.27	2.71	2.23	2.61
5. 심리적으로 자유롭다	2.55	1.27	1.43	1.33	1.22	2.30	2.72	2.53

〈표 13〉 자유복을 착용했을 때 문제점

	전체	학교 급별		지역별		통학복선호유형별		
		중	고	강남	강북	교복	자유복	병용
1. 의생활비의 증가	4.18	2.08	2.09	2.10	2.01	4.33	3.61	4.11
2. 옷에 신경을 써 공부에 지장	3.68	1.85	1.83	1.94	1.74	4.11	3.03	3.57
3. 학생답지 못한 옷차림을 하게된다	3.62	1.87	1.74	1.73	1.88	3.29	3.42	3.81
4. 학생신분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기쉽다	3.45	1.79	1.66	1.62	1.83	3.18	3.84	3.53
5. 위화감의 조성	3.03	1.36	1.66	1.56	1.46	2.97	3.25	3.00
6. 자신에 어울리는 의복 선택이 어렵다	3.02	1.52	2.49	1.45	1.56	2.94	3.40	2.96

〈표 14〉 학교갈 때 이외의 외출시 교복착용 실태

N : 학생수

학 교 급 별				지 역 별				통학별 선호 유형도						
중		고		강 남		강 북		교복 선호		자유복 선호		병용 선호		
(N=200)		(N=200)		(N=200)		(N=200)		(N=142)		(N=59)		(N=199)		
M	SD	M	SD	t-test	M	SD	M	SD	t-test	M	SD	M	SD	F
3.86	0.41	3.78	0.55	1.64	3.81	0.54	3.82	0.41	-0.20	3.74	0.56	3.86	0.47	36.33***

***P<.001

〈표 15〉 현재 착용하고 있는 교복의 만족도

N : 학생수

학 교 급 별				지 역 별				통학별 선호 유형도								
중		고		강 남		강 북		교복 선호		자유복 선호		병용 선호				
(N=200)		(N=200)		(N=200)		(N=200)		(N=142)		(N=59)		(N=199)				
M	SD	M	SD	t-test	M	SD	M	SD	t-test	M	SD	M	SD	F		
2.72	0.86	2.31	0.71	5.16***	2.52	0.83	2.51	0.80	0.12	2.15	0.68	3.11	0.81	2.60	0.78	36.33***

***P<.001

〈표 16〉 교복 가격의 만족도

N : 학생수

학 교 급 별				지 역 별				통학별 선호 유형도								
중		고		강 남		강 북		교복 선호		자유복 선호		병용 선호				
(N=200)		(N=200)		(N=200)		(N=200)		(N=142)		(N=59)		(N=199)				
M	SD	M	SD	t-test	M	SD	M	SD	t-test	M	SD	M	SD	F		
2.97	0.77	2.84	0.74	1.71	3.04	0.75	2.77	0.74	3.60***	2.75	0.72	3.06	0.80	2.97	0.75	5.10**

**P<.01

***P<.001

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복착용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으로 여겨지며, 지역간 차이는 인정되지 않았다.

6) 교복의 가격에 대한 만족도

가격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역별, 통학별선호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강남의 학생들이 강북지역 학생들에 비해 더 불만족하고 있으며, 교복선호 학생보다 자유복을 선호하는 학생들의 불만족 수준이 높았다(〈표 16〉 참고). 이는 교복이 가격에 비해 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라 여겨지는데, 특히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는 중저가 의류의 원단, 디자인, 가격등과 비교를 해볼 때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7) 입고 싶은 스타일

입고싶은 스타일을 조사한 결과는 〈표 17〉과 같다. 상의에서는 블라우스(40.7%), T-셔츠(59.3%)로 실용적이고 활동성이 높은 옷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고생보다는 여중생이 T-셔츠를 선호하고 있으며, 교복선호학생은 블라우스를 좋아하고 자유복선호학생은 T-셔츠를 좋아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착용하고 있는 교복의 형태가 대부분이 블라우스임을 감안할 때 디자인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하의로는 스커트(55.7%), 바지(44.2%)로 스커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학생은 고등학생에 비해 바지의 착용을 좋아하고 있으며, 교복선

호학생은 스커트를 선호한 것에 비해 자유복 선호 학생은 바지를 선호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고등학생과 교복선호 학생은 여성스러우면서도 단정해 보이는 웃차림을 선호하고 있고, 중학생과 자유복선호 학생은 활동적이면서 자유스러운 웃차림을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끼의 착용은 모든 집단에서 희망하는데, 이는 교복이 기온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93년의 유행하는 경향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도 생각된다. 학교급별, 통학복 선호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들이 더 입기를 희망하고 있고, 자유복선호 학생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 조끼의 착

용을 선호하는율이 낮다.

상의로는 재킷(58.0%), 스웨터(42.0%)로 재킷을 입기를 희망하는 학생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교복은 정장의 개념임을 보여주며, 자유복 선호 학생들은 재킷보다는 스웨터의 착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 학교급별에서는 여고생들이 여중생보다 정장스타일과 여성적인 스타일을 선호하는데, 이는 여고생들은 성인여성에 가깝게 변해가는 경향에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여중생들은 여고생에 비해 활동량이 많으므로 기능성을 발휘할 수 있는 웃차림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현대복식의 특징인 편리성과 캐쥬얼 웨어가

〈표 17〉 입고 싶은 스타일

N : 학생수, () : %

		전체	학교급별		지역별		통학복 선호 유형별		
			중	고	강남	강북	교복	자유복	병용
상의	블라우스	163 (40.7)	64 (32.0)	99 (49.5)	83 (41.5)	80 (40.0)	92 (64.8)	8 (13.6)	63 (31.7)
	T-셔츠	237 (59.3)	136 (68.0)	101 (50.5)	117 (58.5)	120 (60.0)	50 (35.2)	51 (86.4)	136 (68.3)
유의도 χ^2 검증		$\chi^2=14.0$ df=2 p<.001			$\chi^2=14.0$ df=2 N.S		$\chi^2=59.7$ df=4 p<.001		
하의	스커트	223 (55.7)	95 (47.5)	128 (64.0)	125 (62.5)	98 (59.0)	105 (73.9)	19 (32.2)	99 (49.7)
	바지	177 (44.2)	105 (52.5)	72 (36.0)	75 (37.5)	102 (51.0)	37 (26.1)	40 (67.8)	100 (50.3)
유의도 χ^2 검증		$\chi^2=11.0$ df=1 p<.001			$\chi^2=7.4$ df=1 p<.01		$\chi^2=35.2$ df=2 p<.001		
조끼의 착용	좋다	353 (88.2)	170 (85.0)	183 (91.5)	180 (90.0)	173 (86.5)	130 (91.5)	41 (69.5)	182 (91.5)
	나쁘다	47 (11.8)	30 (15.0)	17 (8.5)	20 (10.0)	27 (13.5)	12 (8.5)	18 (30.5)	17 (8.5)
유의도 χ^2 검증		$\chi^2=4.1$ df=1 p<.05			$\chi^2=1.2$ df=1 N.S		$\chi^2=23.5$ df=2 p<.001		
상의	재킷	232 (58.0)	110 (55.0)	122 (61.0)	111 (55.5)	121 (60.5)	92 (64.8)	27 (45.8)	113 (56.8)
	스웨터	168 (42.0)	90 (45.0)	78 (39.0)	89 (44.5)	79 (39.5)	50 (35.2)	32 (54.2)	86 (43.2)
유의도 χ^2 검증		$\chi^2=1.5$ df=1 N.S			$\chi^2=1.0$ df=1 N.S		$\chi^2=6.4$ df=2 p<.05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고 본다.

통학복 선호유형별로 보면, 교복선호 학생보다 자유복선호 학생이 스포티한 스타일을 선호하는데, 스포티한 스타일의 옷은 시작적으로도 청소년과 어울리며 실제로 활동성도 크기 때문에 본다. 현 교복은 대부분이 재킷, 블라우스, 조끼, 스커트로 이루어져 활동이 가장 많은 시기임에도 여성스러움, 단정함, 정숙함이 강조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특히 중학생들의 욕구와는 맞지 않는 것 같다.

3. 선호하는 교복 디자인

1) 재킷

재킷의 디자인에서는 허리들어간 정도, 길이, 칼라, 여밈 등을 조사하였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다.

허리들어간 정도에서는 집단들간의 차이는 없었으며, 대부분이 허리에 꼭 맞는 형보다는 약간 들어간 형과 협령한 Box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유경숙, 1991)의 결과와 일치하며 이는 여학생들이 의복선택시 편안함과 기능성을 중시하기 때문으로 보인다(표 18) 참고).

재킷의 길이는 중·고등학생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여고생에 비해 여중생이 허리선과 엉덩이 선까지의 길이를 더 선호하고 있다. 또한 강남지역 학생들은 엉덩이선까지 오는 길이를 강북지역 학생들보다 더 선호하고 있는데 이는 올 가을, 겨울의

경우 긴 재킷이 유행하고 있는 것의 영향으로 보이며 유행과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역적인 특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표 19) 참고).

재킷의 칼라로는 테일러드칼라(68.0%)를 가장 좋아하는데, 정장스타일의 보편적인 형을 가장 선호하는 것 같다. 학교급별, 지역별, 통학복선호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자유복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은 여중생과 강북지역 학생들이 다른집단에 비해 테일러드칼라의 선호비율이 낮았는데, 이는 테일러드칼라의 경직된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된다(표 20) 참고).

재킷의 여밈은 싱글(12.5%), 더블(23.5%), 아래가 벌어진 형(64.0%)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유경숙, 1991)의 연구결과인 테일러칼라의 더블여밈을 가장 선호하는 것과 차이를 보이며, 특히 여중생과 자유복선호 학생들이 아래가 벌어진 여밈을 좋아하는데 이는 단순히 싱글, 더블여밈보다는 약간의 변화를 줘서 재킷의 단조로움을 탈피한 형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표 21) 참고).

전체적으로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재킷의 형태는, 허리부분은 약간 들어가서 활동성과 여성스러움을 나타낼 수 있는 형을 선호하며, 테일러칼라에 약간 벌어진 여밈에, 허리와 엉덩이의 중간 정도의 길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선호하는 재킷의 허리들어간 정도

N : 학생수, () : %

	전체	학교급별		지역별		통학복 선호 유형별		
		중	고	강남	강북	교복	자유복	병용
Box형	87 (21.8)	35 (17.5)	52 (26.0)	51 (25.5)	36 (18.0)	31 (21.8)	16 (27.1)	40 (20.1)
	271 (67.7)	140 (70.0)	131 (65.5)	128 (64.0)	143 (71.5)	100 (70.4)	34 (57.6)	137 (68.8)
약간 들어간 형	42 (10.5)	25 (12.5)	17 (8.5)	21 (10.5)	21 (10.5)	11 (7.8)	9 (15.3)	22 (11.1)
꼭 맞는 형	400 (100.0)	200 (100.0)	200 (100.0)	200 (100.0)	200 (100.0)	142 (100.0)	59 (100.0)	199 (100.0)
유의도 X ² 검증		X ² =5.1 df=2 N.S		X ² =3.4 df=2 N.S		X ² =4.5 df=4 N.S		

〈표 19〉 선호하는 재킷의 길이

N : 학생수, () : %

	전체	학교급별		지역별		통학복 선호 유형별		
		중	고	강남	강북	교복	자유복	병용
허리선	88 (22.2)	56 (28.0)	32 (16.0)	35 (17.5)	53 (26.5)	22 (15.5)	17 (28.8)	49 (24.6)
배둘레선	232 (58.0)	100 (50.0)	132 (66.0)	117 (58.5)	115 (57.5)	91 (64.1)	27 (45.8)	114 (57.3)
엉덩이선	80 (20.0)	44 (22.4)	36 (18.0)	48 (24.0)	32 (16.0)	29 (20.4)	15 (25.4)	36 (18.1)
합계	400 (100.0)	200 (100.0)	200 (100.0)	200 (100.0)	200 (100.0)	142 (100.0)	59 (100.0)	199 (100.0)
유의도 X ² 검증		X ² =11.8 df=2 p<.01		X ² =6.9 df=2 p<.05		X ² =8.3 df=4 N.S		

〈표 20〉 선호하는 재킷의 칼라

N : 학생수, () : %

	전체	학교급별		지역별		통학복 선호 유형별		
		중	고	강남	강북	교복	자유복	병용
테일러칼라	272 (68.0)	123 (61.5)	149 (74.5)	157 (78.5)	115 (57.5)	112 (78.9)	38 (64.4)	122 (61.3)
스텐칼라	60 (15.0)	36 (18.0)	24 (12.0)	22 (11.0)	38 (19.0)	16 (11.3)	8 (13.6)	36 (18.1)
라운드넥트라인	29 (7.2)	13 (7.5)	16 (8.0)	11 (5.5)	18 (9.0)	5 (3.5)	6 (10.2)	18 (9.1)
V넥크라인	39 (9.8)	28 (14.0)	11 (5.5)	10 (5.0)	29 (14.5)	9 (6.3)	7 (11.9)	23 (11.6)
합계	400 (100.0)	200 (100.0)	200 (100.0)	200 (100.0)	200 (100.0)	142 (100.0)	59 (100.0)	142 (100.0)
유의도 X ² 검증		X ² =12.6 df=3 p<.01		X ² =21.7 df=3 p<.001		X ² =13.5 df=6 p<.05		

2) 블라우스

블라우스의 소매는 셔츠소매와 커프스 없는 소매(set-in소매)를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드러운 느낌의 puff가 들어간 소매보다는 직선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며, 여학생들이 활동적이면서 스포티해보이는 의복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22〉 참고). 학교급별, 지역별, 통학복선호 유형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여중생과 강북지역 학생, 자유복선호 학생들이 다른 집단보다 커프스 없는 소매를 좋아하고 있다.

칼라는 의복에 있어서 장식적,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입는 사람 얼굴의 윤곽에 착시적 영향을 미치는데, 칼라는 셔츠칼라와 스텐칼라를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매와 마찬가지로 직선형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중생은 여고생보다 스텐칼라를 더 좋아하고 있으며, 강북지역 학생들이 강남지역 학생들에 비해 피터팬칼라를 좋아하고 있다(〈표 23〉 참고).

전체적으로 학생들은 셔츠블라우스를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복의 재킷과 조끼와 잘

〈표 21〉 선호하는 재킷의 여밈

N : 학생수, () : %

	전체	학교급별		지역별		통학복 선호 유형별		
		중	고	강남	강북	교복	자유복	병용
싱글여밈	50 (68.0)	25 (12.5)	25 (12.5)	28 (14.0)	22 (11.0)	18 (12.7)	12 (20.3)	20 (10.1)
더블여밈	94 (23.5)	21 (10.5)	73 (36.5)	54 (27.0)	40 (7.0)	43 (30.3)	7 (11.9)	44 (22.1)
벌어진형	256 (64.0)	154 (77.0)	102 (51.0)	118 (59.0)	138 (69.0)	81 (57.0)	40 (67.8)	135 (67.8)
합계	400 (100.0)	200 (100.0)	200 (100.0)	200 (100.0)	200 (100.0)	142 (100.0)	59 (100.0)	199 (100.0)
유의도 X^2 검증		$X^2=39.3$ $p<.001$		$X^2=4.4$ N.S		$X^2=11.9$ $p<.05$		

〈표 22〉 선호하는 블라우스 소매

N : 학생수, () : %

	전체	학교급별		지역별		통학복 선호 유형별		
		중	고	강남	강북	교복	자유복	병용
셔츠소매	253 (63.2)	104 (52.0)	149 (74.5)	142 (70.0)	111 (55.5)	102 (71.8)	29 (50.0)	122 (61.3)
퍼프소매	49 (12.3)	28 (14.0)	21 (10.5)	20 (10.0)	29 (14.5)	18 (12.7)	7 (11.9)	24 (12.1)
커프스없는소매	98 (24.5)	68 (34.0)	30 (15.0)	38 (18.0)	60 (30.0)	22 (15.5)	23 (38.9)	53 (26.6)
합계	400 (100.0)	200 (100.0)	200 (100.0)	200 (100.0)	200 (100.0)	142 (100.0)	59 (100.0)	199 (100.0)
유의도 X^2 검증		$X^2=28.5$ $p<.001$		$X^2=12.6$ $p<.01$		$X^2=22.6$ $p<.001$		

어울리는 무난한 형이지만, 학생들이 블라우스 보다는 T-셔츠를 선호하는 것을 감안할 때, 칼라가 너무 조인다든가, 높게 올라와 답답함을 주는 것은 피해야 하겠다.

3) 조끼

조끼는 재킷과 같은 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너무 단순하며 일반적인 형은 피하는 것 같다 (〈표 24〉 참고).

중·고등학생간에 차이를 보이는데 중학생들이 평범한 스타일보다는 약간 변화있는 스타일을 선호하며, 특히 여고생에 비해 진 조끼를 좋아하는데, 93년에 진 조끼가 유행하고 있는 것과 연관지어 해

석할 수 있다. 통학복선호 유형별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자유복선호 학생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박스형의 편안한 스타일을 선호하고 있다.

4) 스커트

스커트의 길이는 무릎위가 31.5%, 무릎선 62.7%, 무릎아래 5.7%로 스커트의 길이는 긴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표 25〉 참고). 이는 선행연구(김경애, 1985)의 연구결과인 무릎아래 5cm(65.6%)를 가장 선호했던 것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몇년전부터 유행하고 있는 mini skirt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중·고등학생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데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에 비해, 자유복 선호

(표 23) 선호하는 블라우스의 칼라

N: 학생수, (): %

	전체	학교급별		지역별		통학복 선호 유형별		
		중	고	강남	강북	교복	자유복	병용
셔츠칼라	151 (37.7)	61 (30.5)	90 (45.0)	78 (39.0)	73 (36.5)	65 (45.8)	11 (18.6)	75 (37.7)
파티펜칼라	35 (8.8)	19 (9.5)	16 (8.0)	8 (4.0)	27 (13.5)	12 (8.5)	5 (8.5)	18 (9.1)
스포츠칼라	40 (12.5)	34 (17.0)	16 (8.0)	29 (14.5)	21 (10.5)	13 (9.2)	13 (22.0)	24 (12.0)
스텐칼라	116 (29.0)	61 (30.5)	55 (27.5)	59 (29.5)	57 (28.5)	41 (28.9)	20 (33.9)	55 (27.6)
세일러칼라	39 (9.8)	20 (10.0)	19 (9.5)	21 (10.5)	18 (9.0)	9 (6.3)	8 (13.6)	22 (11.1)
스탠드칼라	9 (2.2)	5 (2.5)	4 (2.0)	5 (2.5)	4 (2.0)	2 (1.4)	2 (3.4)	5 (2.5)
합계	400 (100.0)	200 (100.0)	200 (100.0)	200 (100.0)	200 (100.0)	142 (100.0)	59 (100.0)	142 (100.0)
유의도 X ² 검증		X ² =12.9 p<.05		X ² =12.8 p<.05		X ² =18.8 p<.05		N.S

(표 24) 선호하는 조끼의 형

N: 학생수, (): %

	전체	학교급별		지역별		통학복 선호 유형별		
		중	고	강남	강북	교복	자유복	병용
싱글여밈	113 (28.3)	49 (24.5)	64 (32.0)	51 (20.5)	62 (31.0)	40 (28.2)	9 (15.3)	64 (32.2)
더블여밈	122 (30.5)	58 (29.0)	64 (32.0)	66 (38.0)	56 (28.0)	36 (25.3)	27 (45.8)	59 (29.6)
벌어진형	165 (41.2)	93 (46.5)	72 (36.0)	83 (41.5)	82 (41.0)	66 (46.5)	23 (38.9)	76 (38.2)
합계	400 (100.0)	200 (100.0)	200 (100.0)	200 (100.0)	200 (100.0)	142 (100.0)	59 (100.0)	199 (100.0)
유의도 X ² 검증		X ² =12.2 p<.05		X ² =1.9 p<.05		X ² =19.4 p<.05		N.S

학생이 다른 집단에 비해 무릎위의 길이를 좋아하는 비율이 높았다.

학교에서는 교복의 스커트 길이를 무릎아래로 규제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발랄함과 경쾌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스커트길이에 대한 규제는 자유로워져야 할 것 같으며, 교복의 디자인에 대한 고정관

념도 없어져야겠다.

스커트의 형은 플레어스커트(36.2%), 타이트스커트(24.5%), 점퍼스커트(10.5%) 순으로 나타나(表 26) 참고), 현재 가장 많이 착용하고 있는 부분주름스커트에 만족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학교급별, 통학복선호 유형별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

(표 25) 선호하는 스커트의 길이

N: 학생수, (): %

	전체	학교급별		지역별		통학복 선호 유형별		
		중	고	강남	강북	교복	자유복	병용
무릎위	126 (31.5)	79 (39.5)	47 (23.5)	62 (31.0)	64 (32.0)	28 (19.7)	27 (45.8)	71 (35.7)
무릎선	251 (62.7)	106 (50.3)	145 (72.5)	125 (62.5)	126 (63.0)	104 (73.2)	25 (42.4)	122 (61.3)
무릎아래	23 (5.7)	15 (7.5)	8 (4.0)	13 (6.5)	10 (5.0)	10 (7.0)	7 (11.9)	6 (3.0)
합계	400 (100.0)	200 (100.0)	200 (100.0)	200 (100.0)	200 (100.0)	142 (100.0)	59 (100.0)	199 (100.0)
유의도 X^2 검증		$X^2=16.3$ df=2 p<.001		$X^2=0.4$ df=2 N.S		$X^2=24.5$ df=4 p<.001		

(표 26) 선호하는 스커트의 형

N: 학생수, (): %

	전체	학교급별		지역별		통학복 선호 유형별		
		중	고	강남	강북	교복	자유복	병용
타이트스커트	98 (24.5)	33 (16.5)	65 (32.5)	57 (28.5)	41 (20.5)	40 (28.2)	12 (20.3)	46 (23.0)
플레이어스커트	145 (36.2)	90 (45.0)	55 (27.5)	64 (32.0)	81 (40.5)	40 (28.2)	22 (37.3)	83 (41.7)
큐褴스커트	22 (5.5)	14 (7.0)	8 (4.0)	11 (5.5)	11 (5.5)	2 (1.4)	8 (13.6)	12 (6.0)
점퍼스커트	42 (10.5)	31 (15.5)	11 (5.5)	17 (8.5)	25 (12.5)	12 (3.0)	7 (11.9)	23 (11.6)
플리츠스커트	27 (6.7)	10 (5.0)	17 (8.5)	25 (12.5)	12 (6.0)	9 (6.3)	6 (10.2)	12 (6.0)
부분주름스커트	66 (16.5)	22 (11.0)	44 (22.0)	36 (18.0)	30 (15.0)	39 (27.5)	4 (6.8)	23 (12.7)
합계	400 (100.0)	200 (100.0)	200 (100.0)	200 (100.0)	200 (100.0)	142 (100.0)	59 (100.0)	199 (100.0)
유의도 X^2 검증		$X^2=39.2$ df=6 p<.001		$X^2=7.4$ df=6 N.S		$X^2=36.8$ df=12 p<.001		

으며, 특히 고등학생들이 타이트스커트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단정해보이면서도 자신의 체형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으로 여겨지며, 자유복선호 학생들은 활동적인 큐褴스커트를 다른 집단보다 좋아하고 있다.

4) 교복의 색상

재킷의 색상으로 검정(32.5%), 곤색계통(25.5%), 회색(16.8%)으로 나타나, 명도와 채도가 모두 낮은 색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교복은 하나의 제복으로서 각 개인의 개성을 나타내려 하기보다는 차분하고 세탁에 있어 무난한 색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고등학생 간에 차이를

〈표 27〉 선호하는 교복의 색상

N : 학생수, () : %

채킷의 색상							
	전체	학교급별		지역별		통학복 선호 유형별	
		중	고	강남	강북	교복	자유복
황색계통	3 (0.8)	2 (1.0)	1 (0.5)	3 (1.5)	0	1 (0.7)	2 (3.4)
	102 (25.5)	25 (12.5)	77 (38.5)	59 (29.5)	43 (21.5)	15 (10.6)	14 (23.7)
곤색계통	50 (12.5)	21 (10.5)	29 (14.5)	7 (3.5)	43 (21.5)	15 (10.6)	36 (18.1)
	33 (8.2)	26 (13.0)	7 (3.5)	8 (4.0)	25 (12.5)	6 (4.2)	27 (13.6)
초록색계통	15 (3.7)	14 (7.0)	1 (0.5)	8 (4.0)	7 (3.5)	4 (2.8)	8 (5.1)
	67 (16.8)	29 (14.5)	38 (19.0)	43 (21.5)	24 (12.0)	26 (18.3)	36 (18.1)
자주색계통	130 (32.5)	83 (41.5)	47 (23.5)	72 (36.0)	58 (29.0)	38 (26.8)	21 (35.6)
	400 (100.0)	200 (100.0)	200 (100.0)	200 (100.0)	200 (100.0)	142 (100.0)	199 (100.0)
검정색				X ² =62.6 df=7 p<.001	X ² =47.7 df=7 p<.001	X ² =30.5 df=14 p<.01	
합계							
유의도 X ² 검증							

블라우스의 색상

블라우스의 색상							
	전체	학교급별		지역별		통학복 선호 유형별	
		중	고	강남	강북	교복	자유복
황색계통	6 (1.5)	1 (0.5)	5 (2.5)	4 (2.0)	2 (1.0)	0	2 (3.4)
	11 (2.7)	4 (2.0)	7 (3.5)	3 (1.5)	8 (4.0)	2 (0.5)	6 (5.1)
곤색계통	3 (0.8)	1 (0.5)	2 (1.0)	1 (1.0)	2 (1.0)	1 (0.7)	2 (1.0)
	10 (2.6)	3 (1.5)	7 (3.5)	4 (2.0)	6 (3.0)	2 (1.4)	6 (3.4)
초록색계통	343 (85.7)	167 (83.5)	176 (88.0)	178 (89.0)	165 (82.5)	130 (91.6)	50 (84.8)
	18 (4.5)	16 (8.0)	2 (1.0)	6 (3.0)	12 (6.0)	5 (3.5)	11 (3.4)
자주색계통	9 (2.2)	8 (4.0)	1 (0.5)	4 (2.0)	5 (2.5)	2 (1.4)	7 (3.5)
	400 (100.0)	200 (100.0)	200 (100.0)	200 (100.0)	200 (100.0)	42 (100.0)	199 (100.0)
검정색				X ² =22.4 df=7 p<.01	X ² =7.9 df=7 N.S	X ² =14.7 df=14 N.S	
합계							
유의도 X ² 검증							

(표 28) 선호하는 교복의 무늬

N: 학생수, (): %

	전체	재킷					
		학교급별	지역별	교복	자유복	병용	
중	고	강남	강북				
체크무늬	101 (25.3)	58 (29.0)	43 (21.5)	55 (27.5)	46 (23.0)	35 (24.6)	14 (23.7)
	299 (74.7)	142 (71.0)	157 (78.5)	145 (72.5)	154 (77.0)	107 (75.4)	45 (76.3)
합계	400 (100.0)	200 (100.0)	200 (100.0)	200 (100.0)	200 (100.0)	142 (100.0)	59 (100.0)
유의도 X^2 검증		$X^2=3.2$ N.S	$X^2=1.1$ N.S		$X^2=2.7$ df=4 N.S		
블라우스							
체크무늬	33 (7.9)	6 (3.0)	26 (12.0)	9 (4.5)	23 (11.5)	7 (4.9)	3 (5.1)
물방울무늬	15 (3.8)	13 (6.5)	2 (1.0)	2 (1.0)	13 (6.5)	4 (2.8)	6 (10.2)
무늬없는 것	353 (88.3)	181 (90.5)	172 (86.0)	189 (94.5)	164 (82.0)	131 (92.3)	50 (84.7)
합계	400 (100.0)	200 (100.0)	200 (100.0)	200 (100.0)	200 (100.0)	142 (100.0)	59 (100.0)
유의도 X^2 검증		$X^2=22.9$ $p<.001$	$X^2=16.4$ $p<.01$		$X^2=17.1$ $df=6$ $p<.01$		

보이는데 중학생이 검정색의 선호비율이 높은데 비해 고등학생은 곤색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강남지역 학생들은 강북지역 학생들에 비해 검정색, 회색등의 무채색을 더 좋아하고 있었다. 이는 중학생과 강남지역 학생들이 유행의 영향을 더 받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블라우스는 백색이 85.7%로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이는 선행연구(유경숙, 199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백색의 선호 이유는 깨끗해 보이면서 누구에게나 잘 어울리고, 다른 색채와 배색이 잘 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학생들의 선호하는 의복색은 블라우스의 경우 밝은색을 선호하며, 가을, 겨울에 입게되는 재킷의 경우 검정, 파랑색같은 명도가 낮은 색상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아 색상 선택시 자신의 피부색에 대한 고려보다는 계절과 관리의 편이성에 대한 고려를 더 하는 것으로 보이며, 3년동안 착용하게 되므로 무

난한 색을 선호하는 것 같다((표 27) 참고).

5) 교복의 무늬

재킷(74.7%)과 블라우스(88.2%) 모두 무늬가 없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데, 이는 선행연구(이선재, 1982. 최재춘, 1982)의 무늬 없는 단색 옷을 좋아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재킷은 무늬가 있을 경우 체크무늬를 선호하며, 블라우스는 다른 옷과 쉽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단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라우스의 경우 학교급별, 지역별, 통학복선호 유형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고등학생들은 줄무늬를 선호하는 비율이 중학생에 비해 높았고, 강북지역 학생들은 강남지역 학생에 비해 무늬있는 블라우스를 좋아하고 있다((표 28) 참고).

4. 현재 착용하고 있는 교복과 학생들이 선호하는 교복과의 차이점 비교

1) 재킷

재킷의 칼라는 텔리칼라, V넥크라인, 라운드넥크라인 순으로 많이 착용하고 있었으며, 여밈은 싱글여밈, 더블여밈, 아래가 벌어진 여밈 순이었다.

보편적 스타일인 텔리칼라의 싱글여밈 재킷을 가장 많이 착용하고 있으나, 학생들은 텔리칼라의 아래가 벌어진 여밈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복디자인은 많은 사람에게 어울릴 수 있고 깊증이 나지 않는 디자인을 택하는 것이 좋으나 학생들은 너무 평범한 디자인 보다는 약간의 변화를 준 형을 선호하고 있으며, 교복 착용 자체는 선호하지만 디자인면에서는 자유복에서처럼 다양함을 원하고 있다.

2) 블라우스

블라우스는 계절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셔츠칼라의 퍼프소매를 가장 많이 착용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선호하는 블라우스의 형은 셔츠블라우스로 나타났다.

이 시기는 부드러운 여성적인 스타일보다는 활동적인 스타일을 원하므로 디자인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겨울에 따라 T-셔츠나 라운드넥크라인의 스웨터를 착용하는 것도 관리면이나 활동적인 면에서 이점이 있다고 본다.

3) 조끼

조끼의 경우 착용하고 있는 형과 선호하는 형이 일치하고 있으며, 직물로 만들어진 조끼가 대부분이다. 조끼는 춘추복으로 입을 때는 걸핏이 되지만 동복에서는 안으로 반쳐 입어야 하므로 지금의 직물보다는 니트조끼를 착용하는 것이 활동성과 보온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4) 스커트

스커트는 계절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부분주름스커트를 가장 많이 착용하고 있었다. 이 디자인은 단정해보이면서도 활동이 편하기 때문에 많이 착용하고 있는 것 같으나, 제복을 제외하고는 거의 입지 않는 형이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스커트는 플레어스커트로 현재 착용하고 있는 스커트형에 만족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스커트 길이는 무릎아래 10~15cm로 규정하고 있는 학교가 많은데, 학생들은 무릎선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커트 길이에 대한 규제는 교복이 3년이라는 기간동안 입어야 하고 이 시기가 신체적으로 발육이 왕성하므로 장점이 될 수 있으나 발랄한 학생의 이미지와는 맞지 않으므로 길어야 단정해보인다는 생각은 재고되어야겠다.

5) 교복의 색상

재킷의 색상은 곤색 계통을 가장 많이 입고 있는데 학생들은 검정색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 이는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이고 유행의 영향도 받은 것 같다.

블라우스는 백색을 가장 많이 착용하고 있으며 이는 선호하는 색상과 일치한다.

6) 교복의 무늬

재킷과 블라우스 모두 무늬없는 것을 많이 착용하고 있는데 많은 학교에서 체크무늬의 스커트와 조끼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킷과 블라우스는 무늬가 없는 것을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것과 일치한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현재 교복을 착용하고 있는 학교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착용하고 있는 디자인을 파악하고, 학생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였으며, 중·고등학생들이 선호하는 교복디자인을 조사하여 현재 입고 있는 교복과의 차이점을 파악하므로써 앞으로 학생들에게 더욱 만족할 수 있는 교복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현재 교복을 착용하고 있는 서울시내 소재의 중·고등학교중 91개교에 대해 교복의 실태조사를 하였고, 교복에 대한 태도와 교복디자인 선호도는 질문지를 통하여 서울시내에 있는 여자 중·고생 40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현재 착용하고 있는 교복의 실태조사

서울시내 중·고등학교 605개교중 516개교가 교복을 착용하고 있고 그 중 91개교의 교복디자인은 다음과 같다.

- ① 재킷은 텔리칼라의 싱글여밈을 가장 많이 착용하고 있다.
- ② 블라우스는 소매의 경우 퍼프소매가 가장 많았고, 칼라는 하복에서는 스텐칼라, 춘추복에서는 셔츠칼라가 많았다.

③ 조끼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착용하고 있으며, 아래가 약간 벌어진 형을 가장 많이 착용하고 있다.

④ 스커트는 부분주름스커트를 많이 착용하고 있다.

⑤ 교복의 색상은 재킷의 경우 곤색 계통을, 블라우스의 경우 백색이 가장 많았다.

⑥ 교복의 무늬는 재킷과 블라우스는 무늬가 없는 것이 많았고, 조끼와 스커트는 체크무늬가 많았다.

2. 교복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

① 통학복으로 선호하는 유형은 자유복보다는 교복을 선호하며, 교복과 자유복을 병용해서 입는 것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들이, 강북지역 학생들보다는 강남지역 학생들이 교복을 더 선호하고 있다.

② 교복을 착용함으로써 이로운 점은 '학생의 신분을 표시한다'로 보았고, 좋지 못한 점은 '활동이 불편하다'가 가장 많았다.

③ 자유복을 착용함으로써 이로운 점은 '편하고 활동적이다'이며, 문제점은 '의생활비의 증가'를 들고 있다.

④ 학교갈 때 이외의 교복착용 실태를 알아보면, 대부분이 항상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 교복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만족한다'와 '불만족하다'의 비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짐단별로 보면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⑤ 교복가격에 대한 만족도는 대부분이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역별, 통학복선호유형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⑥ 입고싶은 스타일로는 T-셔츠, 바지, 조끼, 재킷으로 나타났는데, 중학생들이 고등학생에 비해, 자유복선호 학생들이 교복선호 학생들에 비해 활동적이고, 스포티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선호하는 교복 디자인

① 재킷은 허리가 약간 들어간 테일러재킷을 선호하며, 배둘레선 길이에 더블여밈에 아래가 약간 벌어진 형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블라우스는 셔츠칼라에 셔츠소매를 선호해 셔츠블라우스를 가장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조끼는 모두가 착용을 원하고 있으며, 조끼의

형은 재킷과 같은 형을 선호한다.

④ 스커트는 무릎선 정도의 길이와 플레어스커트를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⑤ 교복의 색상은 재킷의 경우 검정색을, 블라우스는 흰색을 가장 좋아하고 있으며, 교복의 무늬는 재킷, 블라우스 모두 무늬없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현재 착용하고 있는 교복과 선호하는 교복디자인

① 재킷의 경우 현재 착용하고 있는 교복은 테일러칼라의 싱글여밈이 가장 많았으나, 선호하는 형은 테일러칼라에 더블여밈에 아래가 약간 벌어진 여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블라우스는 퍼프소매의 셔츠칼라를 가장 많이 착용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퍼프소매보다는 셔츠소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조끼는 착용하고 있는 디자인과 선호하는 디자인이 일치한다.

④ 스커트는 실랫에 차이가 있는데 부분적으로 주름이 들어간 스커트를 가장 많이 착용하고 있으나, 선호하는 형은 플레어스커트이다.

⑤ 교복의 색상은 재킷의 경우 곤색 계통을 가장 많이 착용하고 있는데 반해 선호하는 색상은 검정색으로 나타났고, 블라우스는 착용하는 색상과 선호하는 색상이 모두 백색으로 나타났다.

⑥ 교복의 무늬는 재킷과 블라우스 모두 무늬없는 것을 가장 많이 착용하고 있으며, 이는 선호하는 것과 일치한다.

이상의 결과에 근거하여 여자 중·고생의 교복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교복을 착용하고 있는 학생들이 교복의 단점으로 활동의 불편함을 들었는데, 이는 교복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학생들에게 신체적, 심리적으로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막연하게 불편하다는 것보다는 세부적으로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며, 교복과 인체의 적합성에 관하여 수치상의 연구도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여중생과 여고생의 입고 싶은 스타일과 선호하는 디자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에 근거하여 그들의 연령과 특성에 맞는 디자인의 연구가 있어야 겠다. 뿐만 아니라 소재도 직물만을 고집하지 말고 니트, 저지, 스웨터 등 편성을 종류를 사용해서 활동성을 줄 수 있도록 고려함이 필요하겠다.

한창 심신이 성장하고 자아가 확립되는 시기이므로 획일적인 통제보다는 자율성,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며, 의생활은 그런 역할을 담당 할 수 있는 분야이므로 장기적으로 볼 때 교복을 지양하고 자유복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국내문헌

- 1) 김경애(1983). “여고생의 통학복에 관한 조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김정희(1990). “서울시 남·녀 고교생의 교복, 자유복 착용에 따른 성역할 태도의 차이”.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 김순화(1991). “교복착용이 학생의 자아개념과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김영인(1981). “여자 중·고등학생들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김윤희(1991). “여자 중학생의 교복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김정희(1991). 현대 청년심리학. 서울, 학문사
- 7) 김춘식(1981). “여고생 교복의 동작기능성에 관한 연구: 하복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8) 동아일보. 1985. 10. 17
- 9) 뮤즈, Rolf E. 청소년 이론, 송정두(역)(1981). 경북, 계명대학교 출판부
- 10) 민영순(1991). 발달심리학. 서울, 교육출판사
- 11) 박찬례(1981). “한국 여학생 교복에 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2) 장병립(1985). 청년심리학. 서울, 법문사
- 13) 유경숙(1991). “여고생의 교복디자인 선호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Vol. 15, No. 3. pp. 263-270
- 14) 이선재(1982). “여자 중·고생의 교복디자인 선호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Vol. 6, No. 1. pp. 39-49
- 15) 이수희(1988). “여고생 교복과 자유복에 대한 태도연구”.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6) 이인자(1992). 복식사회심리학. 서울, 수학사
- 17) ———(1992). “교복착용여부와 청소년비행간의 관계성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Vol. 16, No. 1. pp. 55-96
- 18) 최홍자(1974). “교복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9) Kaiser, Susan B.(1991). “복식 사회 심리학”. 김순심의 3명(譯) 서울, 경문사

* 외국문헌

- 20) Kelly, A.E., Daigle, C.W., Lafleur, R.S., and Wils, L.J.(1974). “Adolescent Dress and Social Participatio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2
- 21) Langner L.(1965). “Clothes and Government”, in Roach, M.E and Eicher, J.R.(Eds) Dress, Adornment and the Social Order. N.Y. John Wiley & Sons, Inc
- 22) Ryan, M.S.(1966). Clothing : A Study in Human Behaviour. N.Y. :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